



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22일(한국시간)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새로 합류한 이적생들로 베스트11을 선정한 가운데 라이프치히에서 새 출발을 앞둔 황희찬도 이름을 올렸다. 4-2-3-1 포메이션의 원톱이다. 사진출처 | 독일 분데스리가 홈페이지

황희찬, 獨 이적생 베스트11 <라이프치히>

분데스리가, 최전방 원톱으로 선정
판다이크 제친 UCL 활약상도 소개

‘황소’ 황희찬(24·라이프치히)이 독일 분데스리가 이적생 베스트11에 선정됐다.

분데스리가는 2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올 여름 분데스리가에 합류한 이적생들로 베스트11을 구성했다. 황희찬은 4-2-3-1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이름을 올렸다.

분데스리가는 “라이프치히는 지난 시즌 팀 내 최고 득점원인 티모 베르너가 첼시로 떠났다. 큰 타격이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 황희찬이 새롭게 합류했기 때문”이라며 “다재다능한 그는 빠르고, 양발을 쓴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서 16골·2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7연패를 도운 황희찬은 8일 이적료 1500만유로(약 206억원·추정)에 라이프치히와 5년간 계약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보여준 활약상도 빼놓지 않았다. 분데스리가는 “지난 시즌 황희찬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며 “그 누구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버질 판 다이크(리버풀)를 환상적인 속임수 동작으로 제쳤다”고 칭찬했다. 아울러 “황희찬은 어느 공격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다. 그의 스피드와 기동력은 우리 공격에 유연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라이프치히 마르쿠스 크뢰세 단장의 기대도 곁들였다.

황희찬이 주목 받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분데스리가는 11월 2020~2021시즌 주목해야 할 핵심 이적선수 5명을 소개하면서도 황희찬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분데스리가는 황희찬을 비롯해 르로이 사네(바이에른 뮌헨), 주드 벨링엄(도르트문트), 다니엘 칼리자우리(아우구스부르크), 벤자민 헨리치(라이프치히), 루카스 투사(헤르타 베를린), 조 스칼리(뮌헨글라트바흐), 탕귀 니앙주(바이에른 뮌헨), 디노스 마브로파노스(슈투트가르트), 토마스 뢰니에(도르트문트), 알렉산더 뉘벨(바이에른 뮌헨) 등을 베스트11로 뽑았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제2 전성기 확신…대표팀은 생각 안해”

‘서울맨’ 기성용, 복귀 회견서 밝힌 4가지 키워드



- 1 우승 경쟁하는 ‘강한 서울’ 목표
- 2 K리그 팬들 응원·비판이 자극제
- 3 청용이와 팀이 엇갈려 안타까워
- 4 대표팀? 서울서 잘하는 게 우선

11년 만에 K리그로 컴백한 기성용이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인터뷰 룸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갖고 FC서울과 2번째 동행을 시작했다. 서울 유니폼을 입고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친정팀 서울의 요즘과 K리그의 흐름, 대표팀 복귀 등에 대한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상암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캡틴이 돌아왔다. ‘마스터 키’ 기성용(31)이 11년 만에 K리그1(1부) 친정팀 FC서울로 컴백했다.

기성용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복귀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전성기대를 향한 2번째 동행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유니폼을 입고 K리그 통산 80경기에서 8골·12도움을 올린 그는 유럽생활을 마친 뒤 들고 돌아 ‘서울맨’으로 복귀했다. 계약기간은 3년 6개월, 등번호는 8번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 스타의 복귀에 미디어의 관심도 대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를 위해 일부 매체들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120여 명이 인터뷰 룸을 채웠다. 엄청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기성용은 “K리그로 돌아오려 많이 노력했다. 복귀 과정에 아쉬움도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 책임감을 갖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축구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키워드를 통해 기성용의 솔직한 속내와 의지를 들여다봤다.

●서울

“서울은 스타도 많았고,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이었다. K리그의 모범이 돼야 하고, 리더하는 팀이어야 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는 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리라 믿는다.”

기성용이 셀틱FC(스코틀랜드)로 향했을 때만 해도 서울은 K리그 강호였다. 승리 DNA가 있었고, 자부심도 넘쳤다. 하지만 지금은 지극히 평범한 팀으로 전락했다. 12라운드를 마친 ‘하나원큐 K리그1 2020’에서 3승1무8패, 승점 10으로 고작 11위다. 객관적 전력만 놓고 보면 지금 서울의 위치는 몹시도 낮았다. 안팎으

로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자존심이 강한 기성용은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반등할 실력과 의지는 충분하다. 안 좋은 분위기가 쌓이면 침체가 길어질 수 있는데, 동료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K리그

“국가대표팀을 떠난 뒤 선수로서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부상 등으로 많이 뛰지 못한) 최근 1년간 매너리즘에 빠졌다. 해결책 중 하나가 K리그 복귀였다. 매주 팬들은 저에 대한 큰 기대를 해줄 것이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많은 비판이 따를 것이다. K리그에서 제2의 전성기가 오리라 확신한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60경기 ML, 달라지는 것들…다른 리그 동일지구 팀과 20경기, NL 투수타석 사라져, 연장맨 주자 2루에 두고 승부치기 ▶ 4면

1879 Golf

유틸리티 와 윙지 의 DNA가 결합했다. 1879 고구마 병커탈출 유틸리티

‘1879 GBT 시리즈’는 윙지와 유틸리티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유틸리티로 병커 탈출에 고민이 많은 골퍼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제품이다.

고구마 형태의 헤드를 가진 병커탈출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GBT’는 일반 윙지 대비 2배 이상 넓은 리딩엣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보 골퍼들이 병커에 공이 빠졌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1879 GBT 시리즈’는 블레이드(리딩엣지)가 전체 솔의 2/3를 차지, 바운스가 넓고 커서 병커탈출에 용이하다.

쉽게 어프로치하듯 공 뒤의 모래를 가볍게 치는 것만으로 리프에서 탈출할 수 있다.

힘이 약한 여성이나 시니어들이 병커에 공이 빠졌을 때 힘을 많이 들여도 어렵하다는 점에 착안해 클럽

1879골프가 만든 신개념 유틸리티
‘1879 GBT 시리즈’를 통해
병커탈출 국민대중화를 선언한다.

gbt SERIES

전체 무게를 가볍게 하고 헤드(블레이드)에 무게를 집중시킨 것과 함께 저중심 설계된 블레이드면이 먼저 지면에 닿으며 공을 띄우도록 만들어 모래에 헤드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서도 탑볼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헤드에 라운딩을 줘 클럽 헤드 무게만으로도 정확하게 면서도 가벼운 타격이 가능하다.

백스윙 포지션에 따른 캐리가 조절 가능한데, 무릎위 15도는 30m 캐리, 무릎높이는 20m 캐리, 무릎아래



15도는 10m 캐리가 가능하다.

1879골프 이동현 회장은 “필드에서 KLPGA, KPGA 프로들과 다양한 조건 하에 병커탈출에 용이한 스펙을 찾아내는 실험을 반복, 한국인의 골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유틸리티를 개발하였다”며 “정확하면서도 가벼운 병커 탈출을 통해 골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골프 산업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879 GBT 시리즈’는 1879골프와 피팅 제휴를 맺고 있는 전국 65개 피팅 제휴 센터를 통해 피팅 및 제작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1879골프 공식 홈페이지나 1855-1879로 문의하면 된다.